

## 2022년 동남권 경제전망

이글 책임연구원(glee@bnkfg.com)  
백충기 연구위원(cgbaek@bnkfg.com)

동남권 경제는 2022년중 주력산업 회복, 민간소비 개선 등에 힘입어 2.8%의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할 전망이다. 다만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올해(3.2%)보다는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기계, 철강 등 주력산업 대부분이 성장하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선이 3년 만에 생산 증가세로 전환하고 석유화학도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면서 업황 전반의 개선세를 견인할 전망이다.

서비스업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소득여건 향상 등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의 경우 견조한 신규주택 수요, 공업용 건물건설 증가 등으로 주거용 및 비주거용 모두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2년 지역경제 하방리스크 요인으로는 코로나19 변이 확산, 글로벌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이 지목되고 있다. 동남권과 경제 연관성이 높은 중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도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 세계경제, 2022년에도 상승세 지속할 전망

2022년 세계경제는 4.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반등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은 재정지원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지속하고 신흥국도 백신 접종률 상승<sup>1)</sup> 등으로 성장이 기대된다. 다만 통화정책 정상화, 글로벌 공급차질, 인플레이션 압력 등은 성장 모멘텀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은 인프라 투자 확대<sup>2)</sup>,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양호한 성장이 기대된다. 유로는 유럽회복기금(NGEU)<sup>3)</sup>의 집행 등으로 내수 중심의 회복이 예상되며 일본도 글로벌 제조업 반등 및 정부 소비 지원책<sup>4)</sup> 등으로 완만한 성장흐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중국을 글로벌 경기개선, 소비 회복 등으로 5%대 성장이 예상되나 부동산 시장 불안, 질적성장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sup>5)</sup> 등은 경기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인도의 경우 외국인 투자 확대 등으로 양호한 성장이 기대되나 브라질은 선제적 긴축 정책, 정치 불안 등으로 미약한 개선에 그칠 전망이다.

### 2022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국가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b>세계</b>	<b>3.5</b>	<b>2.8</b>	<b>-3.1</b>	<b>5.9</b>	<b>4.9</b>
<b>선진국</b>	<b>2.2</b>	<b>1.7</b>	<b>-4.5</b>	<b>5.2</b>	<b>4.5</b>
(미국)	3.0	2.2	-3.4	6.0	5.2
(유로)	1.8	1.3	-6.3	5.0	4.3
(일본)	0.3	0.7	-4.6	2.4	3.2
<b>신흥국</b>	<b>4.5</b>	<b>3.7</b>	<b>-2.1</b>	<b>6.4</b>	<b>5.1</b>
(중국)	6.8	6.1	2.3	8.0	5.6
(인도)	6.1	4.2	-7.3	9.5	8.5
(브라질)	1.3	1.1	-4.1	5.2	1.5

자료 : IMF

1) 2021.11.21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완전접종률을 살펴보면 일본(76.5%), 영국(67.7%) 등 선진국의 경우 60~80%에 달하고 있으나 베트남(42.8%), 러시아(36.7%) 등 신흥국은 30~50%에 그치고 있는 상황

2) 미국은 2021.11월 1,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며 도로·교량 정비, 철도·통신망 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

3) NGEU(Next Generation EU) 집행규모는 2021년 974억유로에서 2022년 1,702억유로로 확대될 전망

4) 일본은 2021.11월 55.7조엔(GDP의 약 10%) 규모의 코로나19 지원대책을 발표했으며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대책

5) 중국 경제패러다임은 양적성장을 우선하는 선부론(先富論)에서 균형과 분배를 중시하는 공부론(共富論)으로 전환

## 국내경제, 양호한 성장세 기대

2022년 국내경제는 3%대의 양호한 성장률을 시현할 전망이다.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율이 상승하고 수출, 설비투자도 완만한 증가세가 기대된다. 코로나 변이 재확산 가능성,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은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민간소비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글로벌 이동 재개<sup>6)</sup>, 정부의 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등은 소비 증가세를 일부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 분야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기대되나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건설투자의 경우는 건설수주 증가 등에 힘입어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회복세를 보이면서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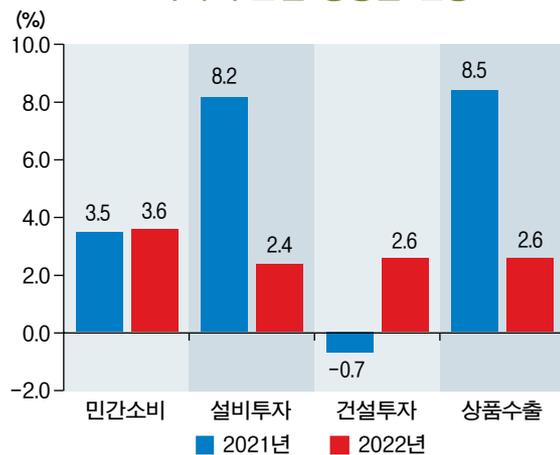
수출의 경우 주요국 투자확대 및 견조한 IT 수요 등에 힘입어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증가율은 금년에 비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전망기관	2022년 (%)	
	2021년	2022년
한국은행(2021.11)	4.0	3.0
한국금융연구원(2021.11)	4.1	3.2
IMF(2021.10)	4.3	3.3
OECD(2021.9)	4.0	2.9

주 : ( )내는 전망발표시기  
자료 : 각 기관

국내 부문별 성장률 전망



자료 : 한국은행

6) 2021.11월 기준으로 국내의 경우 백신 접종완료자는 귀국시 자가격리를 면제(단, 일부 국가 격리면제 제외). 해외에서도 백신 접종 완료자는 입국시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태국 등)가 늘어나는 추세

## 동남권 경제성장률 2.8% 기록할 전망

동남권 경제는 2022년중 주력산업 회복, 민간소비 개선 등에 힘입어 2.8%의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할 전망이다. 다만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올해(3.2%)보다는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기계, 철강 등 주력산업 대부분이 성장하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선이 3년 만에 생산 증가세로 전환<sup>7)</sup>하고 석유화학도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면서 업황 전반의 개선세를 견인할 전망이다.

서비스업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소득여건 향상 등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의 경우 견조한 신규주택 수요, 공업용 건물건설 증가 등으로 주거용 및 비주거용 모두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2년 지역경제 하방리스크 요인으로는 코로나19 변이 확산, 글로벌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이 지목되고 있다. 동남권과 경제 연관성이 높은 중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도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 2022년 동남권 경제성장률 전망<sup>1)2)</sup>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동남권	0.9	1.5	1.8	1.1	0.0	0.2	1.9	-2.2	3.2	2.8
전 국	3.2	3.2	2.8	2.9	3.2	2.9	2.2	-0.9	4.0	3.0

주 : 1) 동남권 경제성장률은 BNK경제연구원 추정치(2020, 2021년) 및 전망치(2022년)

2) 전국은 한국은행 추정치(2021년) 및 전망치(2022년)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BNK경제연구원

7) 산업연구원은 2022년 조선업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는 조선업 생산을 측정하는 기준지표가 통계청과 상이한데 기인. 산업연구원의 경우 건조량(선박인도시점에 일괄 반영), 통계청은 선박 건조 진척량(매월 조사하여 반영)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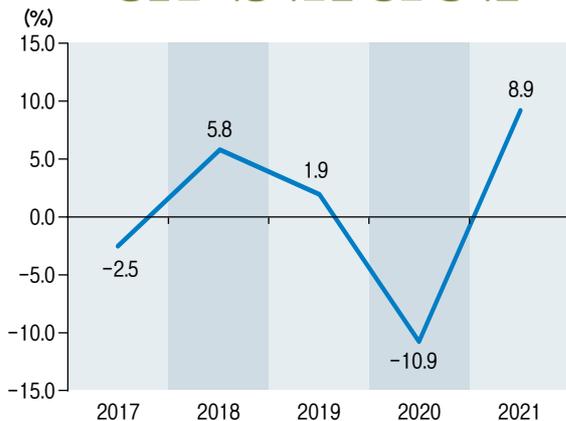
## 자동차

동남권 자동차 생산은 금년 1~10월중 전년동기대비 8.9%의 증가세를 시현했다. 국내 내수판매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개별소비세 인하폭 축소<sup>8)</sup> 등으로 감소했으나 수출이 친환경차 수요 확대, 북미·EU 판매 호조<sup>9)</sup> 등에 힘입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데 기인한다<sup>10)</sup>.

2022년에도 자동차 산업은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세계 자동차 수요가 아·태 지역 및 유럽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6.0% 늘어난 8,530만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내수판매 증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 개선<sup>11)</sup> 등도 업황 회복에 힘을 보탬 전망이다.

특히 친환경차 수요 확대는 업황 개선 속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올해 1~10월중 국내 친환경차의 내수판매 및 수출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64.1%, 41.5% 증가하였으며 내년에도 높은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sup>12)</sup>.

동남권 자동차산업 생산 증가율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2021년은 1~10월 기준  
자료 : 통계청

글로벌 자동차 수요 전망

구 분	2022년 (백만대, %)		
	2020년	2021년	2022년
전세계	77.8 (-13.7)	80.5 (3.5)	85.3 (6.0)
아·태지역	37.8 (-8.3)	38.9 (2.9)	41.2 (5.9)
유럽	16.5 (-20.3)	17.0 (3.0)	18.2 (7.1)
북미	17.0 (-15.8)	17.7 (4.1)	18.5 (4.5)

주 : 1) 승용차 기준  
2) (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LMC Automotive

8) 개별소비세율(5%)은 2021.3월 1.5%까지 인하되었으나 2021.7월부터 3.5%로 인하폭 축소

9) 2021.1~10월 북미·EU 수출액(백만달러, %, 괄호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북미 16,625(35.4), EU 6,777(30.1)

10) 자동차 내수판매 및 수출 전망(만대, %, 괄호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1~10월	연간추정치
내수판매	178.0(14.7)	188.6(6.0)	142.8(-8.5)	184.0(2.4)
수출	240.2(-2.0)	188.7(-21.4)	168.0(9.8)	215.0(13.9)

11) IHS Markit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이 2022년 2분기까지 지속되었으나 3분기부터는 수급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12) 정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에 따르면 세계 친환경차 시장은 2021~25년중 연평균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

**조선**

동남권 조선업 생산은 금년 1~10월중 전년동기대비 -22.5% 줄어들며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선박수주의 경우 같은 기간 306.6% 늘어난 1,457만CGT를 기록하며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동남권 조선업 생산은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수주 호조세 및 생산 차질 물량의 건조 등이 업황 반등을 견인할 전망이다.

수주도 1,300만CGT 내외의 양호한 실적이 기대된다<sup>13)</sup>. 카타르, 러시아, 모잠비크 등의 대규모 LNG선 발주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sup>14)</sup>. 또한 선박교체 수요 확대, 황산화물(SOx)·이산화탄소(CO<sub>2</sub>) 등 환경오염물질 해상환경규제 강화<sup>15)</sup>도 수주증가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2021년은 1~10월 기준  
자료 : 통계청



주 : 1) 2021~22년은 한국수출입은행 전망치  
자료 : Clarkson, 한국수출입은행

13) 2022년에는 금년중 급격히 늘어난 컨테이너선 수주가 줄어들면서 수주실적은 올해보다 하락할 가능성

14) 주요 LNG 프로젝트 개요 및 국내 조선사 수주현황

프로젝트명	내용
노스필드(카타르)	- 카타르에너지공사, 국내3사와 LNG선 건조 슬롯계약(2020.6월) : 예상발주량 100척 이상
ARCTIC-2(러시아)	- 노바텍사, 쇠빙 LNG선 20~30척 발주에 따른 국내 조선사 수주 확대 예상
제4광구(모잠비크)	- 삼성중공업 건조 FLNG '코랄 솔' 진수(2021.11월), LNG선 다수 발주 예상

15) 환경오염물질별 해상규제 강화 내용

물질명	규제 강화 내용
황산화물(SOx)	- 2020년부터 배출규제역 외의 지역에서도 황함유량 0.5% 이하의 연료 사용이 필수 - 상대적으로 저렴한 탈황장치(스크러버)의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어 향후 친환경 연료 선박 교체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산화탄소(CO <sub>2</sub> )	- 2020년부터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를 선종·크기별 기준대비 20% 감소를 의무화 - 2022~25년중 EEDI 감소를 기준이 20% → 30%로 강화될 예정

## 석유화학

동남권 석유화학산업 생산은 금년 1~10월중 전년동기대비 6.3% 늘어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재택근무 확산, 배달물량 증가, 방역 강화 등으로 가전제품, 포장용기, 위생용품 등 언택트 수요가 증가한 데 상당부분 기인한다<sup>16)</sup>.

내년에도 석유화학산업은 높은 성장세를 시현할 전망이다. 건설, 자동차, 섬유 등 전방산업 개선 및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폴리프로필렌, PVC, ABS수지 등 주요 제품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년중 석유화학산업 반등세를 견인한 언택트 수요는 증가세가 다소 낮아지겠으나 견조한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설비 증설에 따른 글로벌 공급 과잉은 성장의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글로벌 전망기관은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 주요 석유화학제품의 생산능력이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sup>17)</sup>. 이와 함께 국내 석유화학 수출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경제의 둔화도 성장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으로 우려된다.

동남권 석유화학산업 생산 증가율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2021년은 1~10월 기준  
 자료 : 통계청

국내 주요 제품별 생산능력

구분	천톤/년, %		
	2020년	2021년	증가율
에틸렌	9,816	11,800	20.2
프로필렌	9,415	10,503	11.6
부타디엔	1,507	1,778	18.0
벤젠	7,299	7,856	7.6
톨루엔	2,768	2,720	△1.7
자일렌	3,488	3,482	△0.2

주 : 기초유분 기준(2021년은 6월말 기준)  
 자료 : 한국석유화학협회

16) 특히 석유화학제품 수출(MTI 21 기준)의 경우 글로벌 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지난해 부진(-17.2%)에서 벗어나 금년 1~10월중 전년동기대비 68.5%의 높은 증가세 시현

17) 업계에서는 글로벌 석유화학 생산능력이 2020년 연 22억톤 수준에서 2030년 연 30억톤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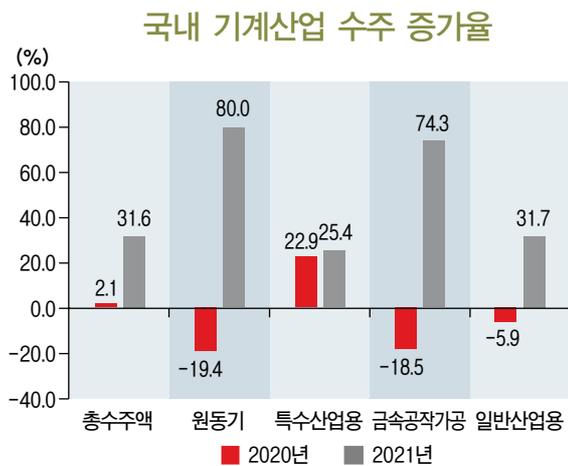
동남권 기계산업 생산은 국내외 경기 회복,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금년 1~10월중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했다. 국내 기계산업 수주도 원동기(80.0%), 금속공작가공기계(74.3%)가 크게 늘면서 전년동기대비 31.6%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했다<sup>18)</sup>.

2022년 동남권 기계산업은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내수의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의 신규 생산설비 증설이 기대되고 있다<sup>19)</sup>. 이와 함께 친환경관련 투자 확대,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등도 성장세를 견인할 전망이다.

수출 여건도 우호적이다. 기계산업 수출은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 북미·신흥국의 건설기계 수요 증대 등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급망 개선 등에 힘입어 반도체 및 IT기기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2021년은 1~10월 기준  
자료 : 통계청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2021년은 1~9월 기준  
자료 : 통계청

18) 기계류 분류별 세부항목

분류	세부항목
원동기	원자력원동기, 화력원동기, 수력원동기, 내연기관, 회전전기장치
금속공작가공기계	금속공작기계, 금속가공기계

19) 주요 전방산업별 설비투자 진행 현황

전방산업	설비투자 진행현황
반도체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2022년 한국의 반도체 설비투자 규모가 300억달러로 세계 1위에 달할 것으로 전망
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는 OLED 생산시설에 각각 2019~2025년중 10조원, 2021~2023년중 3.3조원 규모 설비투자 진행 중
석유화학	한국은행에서 실시한 2022년 설비투자계획 설문조사 결과 화학물질·화학제품 업종의 설비투자 계획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65.2%로 전체 1위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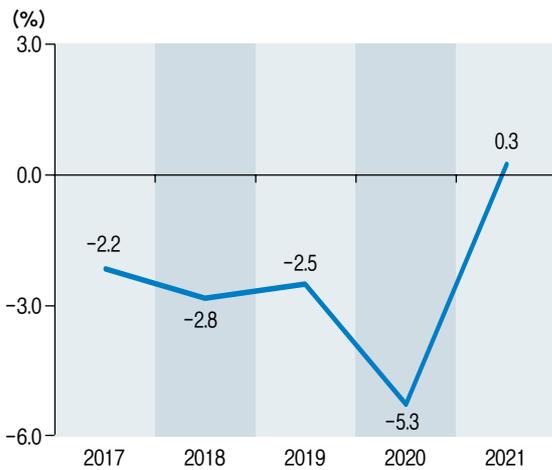
**철 강**

동남권 철강산업 생산은 금년 1~10월중 전년동기대비 0.3% 증가하며 2016년 이후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건설·조선·자동차 등 전방산업 호조, 중국 철강생산 축소 등이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원자재가격 상승,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비중 확대 등으로 수익성도 제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2년에는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수출의 경우 EU, 북미, 신흥국의 철강수요가 5%대의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호조세를 보일 전망이다. 내수 판매도 조선, 건설 등 전방산업 성장으로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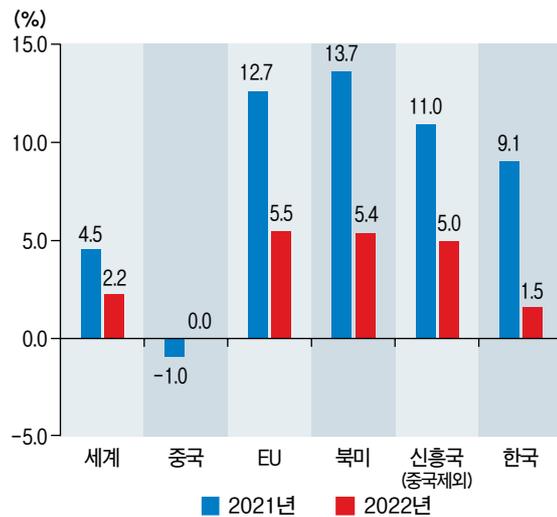
다만 최근 철광석 가격 변동성 확대<sup>20)</sup>, 친환경 인프라 투자 필요성 등은 성장의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수소환원제철 도입시 상당한 투자비용이 예상되며 이는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21)</sup>.

**동남권 철강산업 생산 증가율**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2021년은 1~10월 기준  
 자료 : 통계청

**세계 철강수요 증가율 전망**



주 : 2021년 10월 발표자료  
 자료 : World Steel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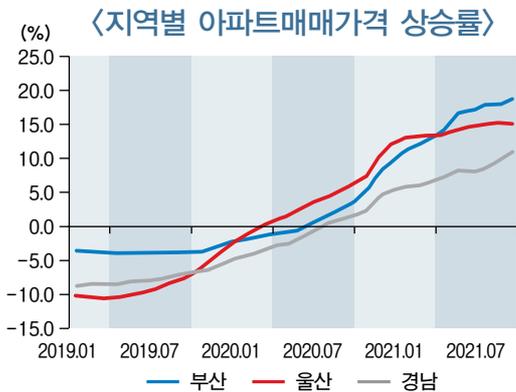
20) 철광석 가격 전망(달러/톤, 한국광해광업공단) : 133.19(2020년) → 169.33(2021년) → 109.06(2022년)

21) 산업연구원의 '탄소중립 감축수단별 비용 추정'에 따르면 탄소중립을 위해 철강업계가 2050년까지 부담해야 할 비용은 7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주요 산업분야 가운데 석유화학(92조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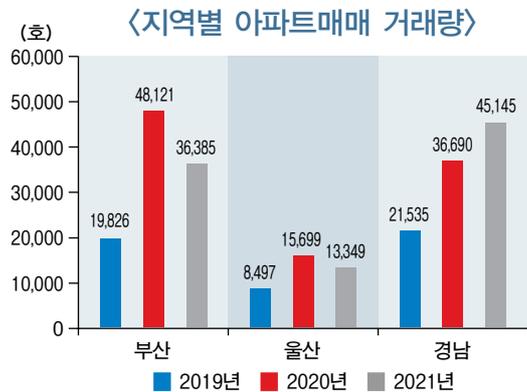
[참고] 동남권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최근 동향

- 동남권 아파트매매가격은 상승세 지속
  - 2020년 3분기 이후 부산·울산·경남 전지역 상승 흐름 지속
  - 금년 1~10월 기준으로 동남권 29개 지역중 가격 상승지역은 27개, 하락지역은 2개로 대부분의 지역이 상승
    - 부산 해운대구(26.2%), 울산 남구(19.1%), 부산 수영구(17.9%)가 최대 상승폭을 시현
- 아파트매매거래량의 경우 경남은 증가한 반면 부산, 울산은 감소
  - 경남이 1~9월중 전년동기대비 23.0%로 유일하게 증가하였고 부산(-24.4%), 울산(-15.0%)은 감소



주 :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 한국부동산원



주 : 각년도 1~9월 누계 기준  
자료 : 한국부동산원

향후 전망

- 동남권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겠으나 정부의 부동산 및 대출 규제로 유동성 및 투자수요가 위축되며 가격 상승폭은 둔화될 전망
- 내년 동남권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최근 5년 평균 대비 -35.5% 감소한 39,036호로 공급으로 인한 가격 하방압력은 크지 않을 전망

[ 지역별 입주 및 입주예정물량 ]

	2017~21년 연평균	2022년	증가율 (호, %)
동남권	60,533	39,036	△35.5
부 산	23,656	26,140	10.5
울 산	7,165	3,904	△45.5
경 남	29,711	8,992	△69.7

자료 : 부동산114

[ 참고문헌 ]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10월 수출입 동향,” 2021.11  
 한국금융연구원, “2022년 경제 및 금융 전망,” 2021.11  
 한국수출입은행, “해운조선업 2021년 3분기 동향 및 2022년 전망,” 2021.10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1.8  
 \_\_\_\_\_, “지역경제보고서,” 2021.9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1.10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1.9  
 World Steel Association, “Short Range Outlook,” 2021.10  
 부동산114, r114.com  
 통계청, www.kosis.kr  
 한국광업광해공단, www.kores.net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부동산원, www.reb.or.kr  
 한국석유화학협회, www.kpia.or.kr  
 Clarksons, www.clarksons.com  
 LMC Automotive, www.lmc-auto.com

BNK경제인사이트 발간목록

2017

01	동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전망
02	4차 산업혁명과 동남권 일자리
03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 진출현황 및 시사점
04	글로벌 환율동향과 동남권 경제
05	원자재시장 동향 및 시사점
06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과제
0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동남권의 미래
08	동남권 주력산업 수출동향과 전망
09	동남권 산업생태계와 향후 과제
10	인구구조 변화와 동남권의 과제
11	2018년 동남권 경제전망

2018

01	동남권 수출과 지역경제
02	동남권 자동차 부품산업 동향과 전망
03	동남권 부동산 시장 점검
04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05	동남권 뿌리산업 현황 및 시사점
06	동남권 100대 기업 변화
07	동남권 기계산업 현황 및 전망
08	동남권 철강산업 현황 및 시사점
09	최근 10년간 지역금융시장 변화 분석
10	조선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11	2019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8년 동남권 경제

2019

01	G2경제 진단 및 시사점
02	동남권 건설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04	사물인터넷 산업현황과 동남권 발전과제
05	동남권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안
06	동남권 강소기업 특징 및 시사점

2019

07	2019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동남권의 일본 수출입 현황 및 시사점
09	동남권 소비동향 및 시사점
10	동남권의 아세안 교류 현황 및 발전과제
11	2020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19년 동남권 경제

2020

01	2020년 동남권 수출 여건 점검
02	동남권 관광산업 현황 및 시사점
03	동남권 주요 상권의 변화 분석
04	동남권 제조업 현황 진단
05	동남권 경공업 동향 및 시사점
06	동남권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
07	2020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뿌리산업 개편과 동남권 발전과제
09	동남권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10	동남권 기계산업 동향 및 시사점
11	2021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키워드로 되돌아본 2020년 동남권 경제

2021

01	2021년 동남권 수출 전망
02	동남권 신공학과 지역경제의 미래
03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시사점
04	환경규제가 동남권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05	동남권 자동차산업 동향과 발전과제
06	ESG 전환과 동남권 대응과제
07	2021년 상반기 동남권 경제 리뷰
08	수소경제의 미래와 동남권 대응과제
09	조선산업 동향과 지역경제 시사점
10	동남권 석유화학산업 현황 및 전망
11	2022년 동남권 경제전망

**E** 이로운  
**S** 세상을  
**G** 그리다

BNK금융그룹은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다음 세상을 그려가겠습니다!

**BNK**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피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신용정보 BNK 시스템 BNK 벤처투자 BNK 씬금융단

**BNK** BNK금융지주

제2021-11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김지완  
 편집인 김성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21년 11월 30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